

대학 교양체육의 성찰과 지향점 탐색

윤대현, 이주욱
충남대학교 체육교육과

Reflection and Intention of General Physical Education in College

Dae-Hyun Yun, Joo-Wook Yi

Dept. of Physical Education, Chungnam National Univ.

요약 대학에서의 교양교육이 인간의 기본적인 덕성과 지성을 갖추게 하고 올바른 한 인간으로서 주체성을 키우게 하는 보편적인 교육이라는 것과 체육이 신체활동을 통해 심동적, 인지적, 정의적 성장을 도모하는 전인적 교육활동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대학의 교양교육과 교양체육은 그 가치와 목표를 같이 하고 있다. 더불어 체육이 지닌 근본적인 특성과 추구하는 가치가 교양교육의 가치와 상통하고 교양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매우 유용하다면 교양체육은 교양교육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현재 교양체육 교과 운용 실태를 보다 면밀히 점검하고, 교양체육 운용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며 교양체육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시도 10개의 국립대학교의 교양체육 운용실태를 분석하였으며, 교양체육 운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또한, 대학 교양체육의 나아갈 방향을 ‘교양교육의 중심으로 자리매김’, ‘체육학의 특징을 반영한 다양한 교과 편성’, ‘기능 위주의 교육에서의 탈피’, ‘전인적 교육활동으로의 교양체육’, ‘교양체육 수업 기회의 증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주제어 : 교양교육, 교양체육

Abstract Liberal education in colleges and universities embrace the concept of general education to enhance individual's morality, intelligence and identity. In consideration of physical education aim to develop cognitive, psychomotor and affective domains as a whole person education, liberal education and general physical education share the same values and objectives. Suppose physical education and liberal education shared same initial values, general physical education should take possession of the core means to achieve liberal education goals.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inspect the actual statement of general physical education curriculum carefully, to find potential problems and prevent them in advance, and also explore future directions. In the current investigation, researchers found potential problems through identifying operation status of general physical education in 10 national universities. In addition, researcher provided future directions of general physical education in college and university including ‘take possession of core means for liberal education’, ‘making diverse general physical education curriculum’, ‘move away from physical skill-centered education’, ‘general physical education as a whole body education’ and ‘increase opportunity of general physical education’.

Key Words : Liberal Education, General Physical Education

* 본 논문은 2013년도 한국 스포츠과학자 통합학술대회 자료집의 일부를 수정·보완하였음

Received 29 November 2013, Revised 30 December 2014

Accepted 20 February 2014

Corresponding Author: Joo-Wook Yi(Chungnam National Univ.)

Email: joowooky@cnu.ac.kr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SSN: 1738-1916

1. 서론

인간에게 신체활동의 가치와 중요성은 시대가 흐르면서 변해왔다. 초기 인류시대부터 현대 이전의 사회에서의 신체활동은 '생존의 수단'이었다.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원시시대에는 수렵이나 채집을 해야 했고, 이후에도 농작물 재배와 수확을 위해 신체활동은 필수적이었다. 또한, 인근 부족이나 국가로부터 방어 혹은 공격의 최우선의 수단이 '신체'였고 '신체적 능력'이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의 신체활동은 '신체기능향상', '건강증진'의 의미를 포함하여 보다 '놀이중심', '여가선용' 중심적으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학교에서의 체육교육의 가치와 방향성도 변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대 중반까지 엘리트체육이 주도하면서 학교체육, 역시 기능중심적 교육으로 이루어졌다. 이후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의 개최와 각 대학에서의 사회체육학과 개설 등과 함께 사회체육에 접근하게 되었고 학교에서의 체육교육도 기능중심적 교육에서 가치중심적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체육교육에서 기능중심적 교육은 신체적 기능 혹은 수행 기능 향상에 중점을 둔 교육이며 가치중심적 교육은 '신체활동을 통한 교육'으로서의 신체적 기능 향상뿐만 아니라 체육이 가지고 있는 인지적, 정서적, 심리적, 사회적 발달의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동안 우리 체육은 학교체육 중심으로 성장해 왔는데 학교체육은 크게 세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는 엘리트체육, 학생선수, 운동부 등으로 일컬어지는 전문체육(전문 스포츠 활동), 두 번째는 교육제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과체육, 세 번째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행하는 스포츠 활동으로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논의될 대학에서의 교양체육은 비 체육전공학생들의 교과체육을 의미한다.

근래 들어 신체활동, 운동, 스포츠로의 참가와 그 효과가 남녀노소 폭넓게 관심을 받고 있는 이 시점에서 대학에서도 교양교육으로서 교양체육의 의미와 역할을 정립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교양교육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대학 교양교육의 일환으로써의 교양체육의 의미와 운용현황, 그리고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확인하여 교양체육

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교양교육으로서의 교양체육

교양의 본래의 뜻은 인간의 덕성과 주체성을 키우기 위한 문화적 교육의 내용과 절차이다. 구체적으로 이런 교육은 서구 중세 이후 대학이 담당해 왔으며,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학 일반교육의 중추를 유지하고 있다[1].

고대 그리스로부터 시작된 교양교육의 의미는 중세에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뜻하는 자유교육(liberal education)과 교육내용이 어느 한쪽으로서의 치우침 없이 구성됨을 의미하는 보편교육(general education)의 의미를 내포한다고 하였다[2][3, 재인용]. 자유교육은 궁극적 실체를 파악하는 지식의 다룸을 의미하며 보편교육은 교양교육이 특정 지식을 전수 받는 전문인을 위한 교육이 아닌 인간이 받아야 하는 인간으로서의 교육을 뜻한다[4].

아리스토텔레스는 교양교육을 첫째, 자유인의 여가생활을 위한 교육이고 둘째, 어떤 활동을 그 유용성 때문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으로서 추구될 수 있도록, 즉 그러한 내용을 그러한 정신으로 가르치는 교육이며 셋째,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빼어남을 지향하는, 인간 특유의 기능이 최고도로 발휘되게 하는 교육이라고 보았다[5].

교양교육의 현대적 개념은 1945년 하버드 대학에서 '자유사회에서의 교양교육(The Liberal Education on Free Society)'이라는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생겨났으며 일반교육으로서의 교양교육은 모든 시민을 위한 것으로 이해되어 중·고등학생까지 교육의 대상이 되었고 교과도 인문학을 포함, 자연, 사회과학까지 확대되었다[6][3, 재인용].

우리의 교육은 인지, 정서, 심동의 전인적 인간 형성을 부르짖고 있지만, 실제로는 산업사회로 접어들면서 과학과 생산, 이성 중심으로 인지적 측면만이 강조되는 것을 막지 못하였다.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중등학교에서는 체육수업의 축소 혹은 선택화가 이루어졌으며 대학에서의 교양체육, 역시 같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대학은 올바른 사회인을 양성하는 조직으로서 상생적 인 두 가지 목적을 추구한다. 첫째는 교양을 쌓는 것이며, 둘째는 전문성을 함양하는 것이다. 이는 유능한 전문 인

력과 훌륭한 교양인의 양성을 의미한다[7].

대학 교육 커리큘럼에서 19세기 학문의 분화가 일어나면서 교양은 대학 교양교과의 지위로 설정되었으며 대학 교양이 인간의 기본적인 덕성과 지성을 갖추는 보편 교육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전공교육과는 독립적으로 한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스스로 확보하는 사람됨의 주체성과 덕성을 키우는 것이 교양교육의 핵심이기 때문이다[1].

2.1 대학 교양체육의 의미

이러한 대학 교양 교육의 일환으로서의 교양체육은 그 속성과 구성으로 인해 다양한 구체적인 역할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신체적인 능력 향상이다. 체육활동은 체력과 운동 능력을 향상시켜서 건강의 유지와 증진을 도움으로써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고 평생의 운동 능력과 태도를 갖게 한다. 또한 인간은 연령에 따라 특별한 자극없이도 성장하게 되는데 단순히 양적인 성장만으로는 완전한 발달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신체활동을 통해 질적인 성숙과 발달을 도모해야 한다.

둘째, 기능적 능력 향상을 통한 생활체육으로의 입문이다. 스포츠나 체육활동의 참여에서 운동 기능의 습득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특히, 대학 교양체육에서의 운동 기능 습득은 보다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우리나라의 교육 여건상 대학 입학 이전에는 생활체육에 참여할 기회가 많지 않은 것이 실정이다. 따라서 김선희(2004)[8]가 대학 교양체육이 평생체육의 입문단계라고 설명하였듯이 대학에서의 운동 기능 습득은 생활체육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동기가 된다.

셋째, 정서적, 심리적, 사회적 능력 향상이다.

〈Table 1〉 2013 Subjects of General Physical Education in National Univ.

Univ.	Name of Subject	n of Subject
A Univ.	Physical Education 1, Physical Education 2, Soccer, Volleyball, Baseball, Archery, Taekwondo, Aerobics, Health & Life, Exercise & Nutrition, Exercise & Health, Korean Dance, Modern Dance, Modern Society & Sport, Recreation, Swimming 1, Swimming 2, Swimming 3, Swimming 4, Swimming 5, Self-Defense, Fitness Training, Basic Tennis, Intermediate Tennis, Advanced Tennis, Basic Golf, Dance Sport, Basic Basketball, Basic Badminton, Basic Bowling, Basic Table Tennis, Intermediate Table Tennis, inline Skate	33
B Univ.	Sports Massage, Table Tennis, Futsal, Badminton, Baseball, Self-Defense, Yoga, Bowling, Weight Training, Dance Sport, Swimming, Tennis, Camping & Rafting, Water Skiing, Skin Scuba, Ski, Snow Board	17
C Univ.	Golf, Recreation, Practice of Exercise, Exercise & Health, Soccer, Tennis, Bowling, Swimming, Dance Sport, Badminton, Aerobics, Volleyball, Table Tennis, Body Building, Leisure Sports & Water-Safety, Self-Defense, Taekwondo, Life Gymnastics for Health, Life Dance, Understanding Dance, Understanding Korean Fork Dance, Understanding Modern Dance, Skiing	23
D Univ.	General Physical Education, Theory & Practice of Soccer, Theory & Practice of Basketball, Theory & Practice of Tennis, Theory & Practice of Table Tennis, Theory & Practice of Golf, Theory & Practice of Badminton, Theory & Practice of Swimming, Theory & Practice of Bowling, Theory & Practice of Racquetball, Theory & Practice of Skiing, Theory & Practice of Clay Shooting, Self-Defense in Life	14
E Univ.	Exercise & Health, Exercise & Nutrition, Sport & Stress, Modern Society & Sport, Golf, Self-Defense, Camping, Gymnastics for Health, Life Bowling, Life Tennis, Running for Health, Dance Sport, Horseback Riding, Softball, Life Badminton, Life Swimming, Chronic Disease & Exercise, Understanding Lifelong Sports	18
F Univ.	Modern Society & Sport, Exercise & Health, Outdoor Education(Camping), Winter Sport(Skiing), Leisure Sport(Bowling, Swimming, Golf, Dance Sport), Ball Game(Basketball, Volleyball, Tennis, Badminton, Table Tennis), Martial Arts & Fitness Sport(Taekwondo, Yoga, Weight Training)	16
G Univ.	Golf for All, Tennis for All, Dance Sport, Soccer for All, Badminton for All, Line Dance, Squash, Modern Society & Sport, Lifelong Fitness & Health, Fitness Management for Life, Adapted Physical Education & Sport, Management of Obesity	12
H Univ.	Physical Education 1, Physical Education 2, Stress & Health, Modern Society & Sport, Exercise & Health	5
I Univ.	Skiing, Soccer, Taekwondo, Basketball, Dance Sport, Jokgu, Judo, Badminton, Horseback Riding, Tennis, Golf, Inline Skate, Swimming, Weight Training, Bowling, Health Running, Volleyball, Table Tennis, Self-Defence, Exercise & Health, Yoga	21
J Univ.	Well-Being Weight Training, Golf, Bowling, Gumdo, Tennis, Tennis, Badminton, Health & Ball Game, Health & Racket Sport	9

Mondello 등(2000)[9]은 교양체육은 학생들에게 새로운 운동기능 습득과 건강한 생활방식에 평생 전념하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였다[8, 재인용]. 현대 체육의 가치는 종전에 집중되었던 생리적, 운동 기능적 차원과 함께 정서적, 심리적, 사회적 가치도 부각되고 있다. 즉, 육구충족, 근원적 경향성 정화, 안녕감, 스트레스 해소 등의 정서적, 심리적 능력 향상과 공동체 의식 함양, 규칙 준수, 협동과 이해, 사회적 함양 등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향상하는 사회적 능력 향상에 일조한다.

넷째, 인지적 능력의 향상이다. 체육교육에서의 지적 능력은 실제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의미한다. 신체활동에 필요한 기초과학 및 전문지식을 이해하고 응용함으로써 보다 실제적이고 효율적인 신체활동을 위한 지적 능력의 향상 또한 체육교육의 목표이며 효과이다. 또한 운동, 건강, 체력 등 체육교육의 중요한 구성요소에 대한 지식을 축적함으로써 현대사회에서 건강한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보장받는다.

다섯째, 가치 인식 변화이다. 체육, 운동, 스포츠에서의 가치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양하다. 과거, 신체활동 참가자들은 신체적 발달과 생리적 건강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 신체활동의 의미와 가치, 그리고 참가의 목적과 효과를 보다 포괄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즉, 현대에는 신체활동의 의미를 신체적 영역뿐만 아니라 정서적, 심리적, 사회적 가치에도 그 목적을 두고 참가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 교양체육에서도 이러한 인식의 변화를 주도하거나 발맞출 필요성이 제기된다.

3. 교양체육 교과 운용 현황

각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양체육의 운영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각 시·도의 국립대학교 10개교의 교양체육 운용 현황에 대해 조사하였다. 조사 방법은 각 대학교 홈페이지[10][11][12][13][14][15]에 공지되거나 주관 학과로부터 수집된 자료로 2013년도 교육과정 교과를 대상으로 하였고 실제 설강되는 교과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강좌수는 고려하지 않았다. 또한 강좌의 특징은 공개된 강의계획서 혹은 교과 설명을 참고하였다.

<Table 1>에서와 같이 10개 대학의 교양체육 교과

구분은 체육강좌의 특성상 이론교과와 실기교과로 구분하였고, Forgarty(2007)[16]의 교과 통합의 접근 방식 중 단일 교과 내의 유형으로 분절형, 연결형, 동심원형으로 구분하였다.

3.1 이론과 실기 구분

조사대상으로 한 10개 국립대학교의 교양체육 교과는 총 168교과였으며 이중에서 이론 교과는 25개 교과로 전체의 14.9%이며 실기 교과는 143개 교과로 전체의 85.1%로 이루어졌다. 이는 체육교과가 신체활동을 매개로 한다는 특징과 장점을 고려한다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실기 교과 중심 혹은 실기 교육이 체육의 가치 중에서 생리적 능력 향상이나 기능적 능력 향상에만 편중되어 있다면 교양체육으로서의 목표 달성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3.2 단일 교과 내의 유형

Forgarty(2007)[16]는 교과 통합의 접근 방식 중 단일 교과 내의 유형으로 분절형(fragmented), 연결형(connected), 동심원형(nested)으로 구분하였다.

분절형은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교과들을 일컬으며 이러한 교과들은 분리되어 가르쳐지며 통합하거나 연결 지으려는 시도는 없다. 연결형은 단일 교과 내에서 주제, 개념, 기능 등을 연결하고 한 학기의 공통 분모를 다음 학기까지 연결 짓는 데에 중점을 둔다. 동심원형은 개별 교과안에서 사회적 기능, 특정한 내용과 관련된 기능 등을 동시에 가르치고자 하는 모형이다. 이는 풍부한 학습 경험이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교수자의 능력에 따라 학습자에게 혼란을 야기시킬수도 있다[3].

조사된 168개의 교양체육 교과 중에서 분절형은 142개 교과로 84.5%, 연결형은 14개 교과로 8.3%, 동심원형은 12개 교과로 7.1%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교과가 그러하고, 특히 교양교육이라는 점에서 교양체육 교과에서도 분절형 교과가 절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연결형 교양체육 교과로는 수영 1, 2, 3, 4, 테니스 초급, 중급 등이 있다. 동심원형 교양 교과로는 현대사회와 스포츠, 운동과 건강, 평생체육의 이해, 건강과 삶, 스포츠와 스트레스, 스트레스와 건강관리 등으로 구분하였다.

4. 교양체육 운용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

교양체육은 각 대학에서 주체적으로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을 지적하기 보다는 그 가능성에 방점을 두기로 한다.

첫째, 실기교과 위기의 교과편성이다.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사대상인 10개 대학의 교양체육 교과 중 85.1%가 실기교과로 편성되어 있으며, 2개 대학은 이론 교과가 전무하다. 체육이라는 특성 상 실기교과의 비중이 다수가 될 수 있을 지라도 그 구성이 실기교과 위주로 일방적이라면 전인교육을 목표로 하는 교양교육의 가치와도, 그리고 신체적 발달뿐만 아니라 인지적, 정서적, 심리적, 사회적 발달을 목표로 하는 체육교육의 가치 추구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둘째, 교과편성과 강좌개설의 주체자에 대한 문제이다. 교과편성은 각 대학별 여건에 따라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체육교과는 시설과 장비의 확충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것이 갖추어지지 못한다면 실행 또한 불가능하다. 또한 해당 대학에서 교육 인력의 확보도 문제가 될 것이다. 강좌개설, 역시 최근 많은 대학에서 인건비(강사료) 절감을 위하여 강좌개설이나 분반을 제한하거나 정원을 과다하게 책정하는 경우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은 체육관련학과 차원을 넘어 대학 소관인 문제도 존재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로 인하여 교수나 강사 중심으로 지도 가능한 교과를 편성하고 강좌를 개설할 것인지? 아니면 학생 중심으로 시대에 발맞추어 현대 체육에 걸맞고 미래지향적인 교과와 강좌를 개설할 것인지? 그 동안의 사례들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교수자의 전문성 제기이다. 체육을 전공한 박사 과정생 이상이면 누구나 교양체육의 어떤 교과든 지도할 수 있다? 교양체육에서 보다 접근이 용이한 실기과목의 지도나 이론과목의 강의가 특히 그렇게 취급되어진 경향이 있고 여러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경우 '가르치면서 배운다'는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최고 지식의 전당이라고 일컬어지는 '대학'에서 전문성에 부합하는 교수자는 필수적이라는 대명제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라기 보다 철저히 교수자 중심의 교육 실태의 단적인 예이다. 더

불어 체육학전공자는 체육학의 어떤 교과든 지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스스로 체육의 전문성을 포기하는 일이 될 것이다.

5. 교양체육이 나아갈 방향

대학교육은 전공교육과 교양교육의 두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들어 전공분야의 지식 축적과 함께 다양한 지식의 습득과 통합(integration), 통섭(consilience) 그리고 융합(convergence)을 통해 창조적 인재 양성을 위한 교양교육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교양체육의 방향을 모색해 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위에서 언급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토대로 몇가지 방향을 제시한다.

5.1 대학 교양교육의 중심으로 자리매김

김재우(2003)[17]의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91.7%, 한광걸과 정찬수(2004)[18]의 연구에서는 88.1%가 교양체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또한, 정의권과 이성국(2004)[19]의 연구에서도 93.8%가 교양체육의 필요성에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나, 교양체육의 수강동기는 '학점을 따기 위해서(47.2%)'가 '흥미를 느껴서(42.5%)'나 '건강과 외모관리(5.5%)'보다 높게 나타나 교양체육 수강의 수월성이 대학생들에게는 가장 큰 수강 동기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후 황향희(2007)[20]의 연구에서는 교양체육의 수강동기가 '스포츠가 좋아서(54.4%)', '건강관리를 위해서(15.3%)', '여가활동을 위해서(15.1%)' 순으로 나타났고 '학점관리를 위해서'는 7.7%에 그쳤다. 또한 대학생과 강사를 대상으로 한 조성원 등(2013)[21]의 연구에서도 교양체육의 역할을 체력육성과 기술습득, 운동재미, 사교의 장, 사회성 함양으로 제시하였다. 즉, 과거에는 학생들이 교양체육을 수강하는 동기가 학점취득, 취업 등의 도구였다면, 현재에는 여가, 건강, 자기계발 등의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다.

즉, 대학교육이 '학문중심'이 아닌 '취업중심'이 되어 버린 현 상황에서 교양체육은 단순히 학점을 받기 쉬운 과목에서 전인교육을 위한 필수적인 과목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방증이다. 또한 이것은 교양체육이 교양교육의 중심이 될 수 있는 당위성을 제공한다.

20세기 이후 오늘날의 교양교육은 사회가 원하는 보편성을 인식하고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전인교육과 통합적 시각으로 삶을 통찰하고 설계하며 발전시킬 수 있는 자유인을 위한 교육이다[3].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체육이 지니고 있는 근본적인 특성과 추구하는 가치가 이러한 교양교육의 가치와 상통하고 교양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매우 유용하다는 것도 대학 교양체육이 교양교육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해야 하는 필요성이다.

5.2 체육학의 특징을 반영한 다양한 교과 편성

체육학은 다학문적(multidisciplinary)이며 간학문적(interdisciplinary) 통합이 이루어진 학문이다. 즉, 체육학은 철학, 심리학, 사회학, 생리학, 역학 등 상호 독립적인 분야에서 신체활동과 관련된 주제를 다학문적으로 통합하여 구성하고 있다. 또한, 체육철학, 스포츠심리학, 스포츠사회학, 운동생리학, 운동역학 등 두 개 이상의 학문이 상호 관련성과 그 공통 분모에 의해 간학문적으로 통합되어져 있다.

그렇다면 교양체육에서도 체육학의 다학문적 혹은 간학문적 통합의 내용으로 보다 다양한 교과를 편성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 대학에서의 이론 강좌 개설 경향은 운동생리학적 접근 등 자연과학 분야로 치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체육학의 다학문적 통합의 성향과 학문적 기능을 고려한다면 보다 인문사회과학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체육학의 하위영역 대부분이 간학문적 통합으로 이루어졌다는 특징을 살려서 보다 다양한 교양체육 교과를 개설한다면 대학교양의 주요 영역으로의 자리매김과 동시에 체육학의 학문성과 실효성 그리고 위상 제고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5.3 기능 위주의 교육에서의 탈피

체육교육은 기능의 전달만이 목적이 될 수 없다. 체육의 목적은 신체활동 그 자체가 아니며, 신체활동을 통하여 “인간다운 인간”을 만드는데 있고 가속화 되는 사회문화 현실속에서 자기상실에 빠지기 쉬운 현대인들에게 창조적인 자기실현의 도구로 활용되는 것이다.

개인적 필요에 대한 인지적, 감성적 체험 방안을 마련하고 기능발달을 추가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교양체육 관련자 모두가 공유해야 하며 또한 이를 홍보해야 한다.

더 이상 교양체육은 시간과 학점을 매워주는 타임킬링용 수업이 아니며, 단순히 건강 지킴이만의 역할도 사양해야 할 것이다. 인지, 감성, 심동의 통합적 인간에 대한 접근을 통해 비판적이며 창의적이고 또한 독립적인 인간을 육성할 수 있는 중추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우리 내부로부터 시작되어 우리의 주변 그리고 전체 사회의 교육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를 통해 체육이 변방화(marginalization)의 위치에서 벗어나 핵심을 담당할 수 있게 될 것이다[22].

또한 교양체육의 목표, 내용 그리고 지도에서 기능적 차원과 함께 안목적 차원의 강조가 필요하다. 즉, 실기 과목에서 종목에 대한 기초 지식과 기능 습득이나 경기 운영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기능적 차원이라면, 체육활동의 가치와 문화를 발견할 수 있는 안목을 길러주는 교육, 즉 안목적 차원에서의 교육[23]이 실천되어야 체육교육의 진정한 가치 전달과 목표 달성을 이룰 수 있다.

5.4 전인적 교육활동으로의 교양체육

교양체육이 기능적 차원과 함께 안목적 차원의 목표를 달성해야 함과 맥을 같이하여 전인적 교육활동으로의 교양체육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제7차 체육교육과정에서도 체육은 신체활동을 통해 심동적, 인지적, 정의적 성장을 도모하는 전인적 교육활동으로 규정하였고 전통적으로 체육의 가치를 이와 같이 정의한다면 대학에서의 교양체육 역할도 이 부분을 충족시키는지 엄밀히 확인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즉, 운동에 참여하여 체력이나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는 심동적 기능뿐만 아니라, 운동이나 건강 혹은 종목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활용하는 인지적 기능과 올바른 가치관과 문화적 규범을 익히는 정의적 기능으로서의 교양체육의 역할을 수행해 왔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개선점과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5.5 교양체육 수업 기획의 증대

1989년, 대통령령(12635호)에 의해 교양체육의 개설이 각 대학에 일임되기 이전까지만 해도 대학에서의 교양체육은 필수과목으로 운용되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여러 대학은 학점을 축소하거나 선택과목으로의 전환을 해왔다. 따라서 학생들의 선택이 자유롭게 되면서 교양체육의 참여 기회를 갖지 않는 학생들도 발생하였다.

선택과목으로의 전환 이외에 교양체육을 회피하거나 참여를 방해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확인해 본다.

첫째, 학점제도를 짚어볼 수 있다. 교양필수에서 교양 선택으로 변경되고 과목당 학점이 2학점에서 1학점으로 축소되는 경향을 보임으로 인해 학기당 혹은 졸업 이수 학점을 이수해야 되는 학생들에게는 1학점인 교양체육을 수강하는 것이 부정적인 측면으로 전달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일찌감치 김영구(1998)[24]의 연구에서도 나타나는데 과반수 이상인 57.8%의 대학생이 1학점인 교양체육보다 2학점의 교양체육 제도를 선호하였다.

둘째, 시설과 장비의 부족이다. 체육의 특징이자 장점은 신체활동이다. 이러한 신체활동은 공간과 도구를 필요로 한다. 체육수업은 운동장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은 이미 너무 진부하다. 현재 곳곳에 들어서 있는 스포츠 관련 시설(골프연습장, 휘트니스클럽, 수영장, 풋살장, 야구장 등)들이 이를 잘 반영해 준다. 또한, 이러한 시설의 증가는 수요자 수와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대학도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좀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이 항상 이상적으로 추구하고 싶어하는 선진국 대학의 경우를 보더라도, 홈페이지에서 학생들의 건강관련 시설 및 제도적 시스템, 운동시설, 운동부의 현황 등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지만, 우리의 대학에서는 그런 대학 홈페이지는 찾아보기 어렵다. 신체활동 혹은 건강에 대한 의식의 차이도 존재하겠지만, 보여줄 제도적 시스템도 시설도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대학에서도 필요에 따른 혹은 수요자 수에 따라 시설 및 장비의 확보에 대해 점검하고 보다 미래지향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수강 선택권 보장과 수강 정원이다. 정의권과 이성국(2004)[19]의 연구 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대학 교양체육에서 수강하고 싶은 스포츠는 종목의 유형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일선 대학에서 이러한 선호 강좌 및 종목에 따른 강좌 개설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토되어야 한다. 공급이 수요를 모두 충족시킬 수는 없더라도 대학에서 학생이 원하는 강좌를 수강하는 것은 특권이자 장점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장기적인 계획과 함께 발빠른 대처도 필요하다. 더불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학 교양체육이 평생체육, 생활체육으로 입문의 기능을 수행한다면 희망하는 강좌의 개설을 위해 교수자 확보와 교육과정 개편 등에 힘써야 할 것이다.

또한, 강좌의 특수성을 고려한 수강 정원 설정이 질 높은 교육을 이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선호도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대학은 강사료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각 대학 평가에서도 강사료 지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됨으로써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다. 그로인해 강의 정원은 늘어나고 있으며 정원 외 수강신청까지 만연하고 있다. 교양체육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수준의 수강정원 운영이 필수적이다.

넷째, 성적평가제도이다. 대학에서의 교양체육은 교양교육의 일환이다. 따라서 모든 학생들이 수강 가능해야 하며 이를 위해 어떠한 걸림돌도 존재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체육이라는 특성상 신체적 기능의 자신감 정도가 참가 동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불어 참가 결과가 '학점'이라는 학생에게는 포기할 수 없는 골레와 직결된다면 이것은 절대적인 요인이 된다. 김석희와 신용석(2002)[25]의 연구에서도 실기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는 자신감 혹은 반대의 위축감이 수강을 선호하거나 회피하는 요인으로 지적하였다. 또한 이와 연결되어 상대평가의 실시도 부담으로 평가되었으며, 신체 및 기능 우수자에게 강의가 집중됨으로써 나머지 학생들로 하여금 수업참여에 대한 의욕이 저해되거나 포기하는 경우도 제시하였다. 따라서 교양교육으로서 교양체육은 우수자와 비우수자의 구분에서부터 참가동기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참가의지에 따라 참가가 결정되고 노력 투입 정도에 따라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체육은 그 동안 엘리트 체육 중심에서 생활체육 중심으로 그 관심이 많이 이동하였다. 현재 대학생들도 교양체육교과의 수강을 선호하고 있으며 정부 교육기관에서도 방과후 활동, 스포츠 클럽 운영, 스포츠강사제도입 등 청소년기부터 스포츠활동을 통해 체력 증진 및 인격형성과 사회성 함양에 많은 관심을 두고 제도개선과 투자를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대학 교양체육이 교양교육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호재라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체육 전공자들이 현재의 대학 교양체육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나아가 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교양체육의 범주를 넘어 체육이 변방화(marginalization)의 위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REFERENCES

- [1] Kim, S. W., Choi. J. D., The crisis of liberal education in a university and the future of the humanities, *Epoch and Philosophy*. Vol. 20, No. 1, pp. 11-42, 2009.
- [2] Kim, I. M., The general education in college. *The Journal of Sunlin Women's College*, 130, 1991.
- [3] Chang, J. W., The search on music course as undergraduate general education of the 21st century. *The Journal of Arts Education*, Vol. 10, No. 3, pp. 183-197, 2012.
- [4] Kim, S. D., *Education Theory of Man*. Book-Salang, 2000.
- [5] Shin C. K., A liberal education : an examination of the doctrine and its theoretical foundations. Ph. D.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1989.
- [6] Oh, J. W., (A)Study on General Education Reform of Harvard College. Master's dissert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2010.
- [7] Choi, E. C., *Exploration of Physical Education Curriculum*. Seoul : Taegun, 2001.
- [8] Kim, S. H., Exploration of learning perspective in physical education in liberal arts course : case study. *Korean Journal of Sport Pedagogy*, Vol. 11, No. 2, pp. 105-120, 2004.
- [9] Mondello, M., Fleming, D., & Focht, B., The organization administration, and operational procedures of and elective program at a research on university. *Physical Educator*, Vol. 57, No. 2, pp. 77-82, 2000.
- [10] Kim, S. H., Exploration of learning perspective in physical education in liberal arts course : case study. *Korean Journal of Sport Pedagogy*, Vol. 11, No. 2, pp. 105-120, 2004.
- [11] www.snu.ac.kr/curriculum
- [12] www.kangwon.ac.kr
- [13] www.chungbuk.ac.kr/kor/u01/f04/u01f04s02t01.jsp
- [14] www.knu.ac.kr/bbs/curri/index.jsp
- [15] www.jejunu.ac.kr/_html/univ/coll/01/03.jsp?dcode=700&hcode=740
- [16] Forgarty, R., *How to Integrate the Curricula*.(3rd) London: SAGE Ltd, 2007.
- [17] Kim, J. W., The way to let the course of physical education in the liberal arts be active.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Physical Education*, Vol. 7, No. 4, pp. 287-301, 2003.
- [18] Han, G. G., Jung, C. S., Survey on awareness of cultural physical education class in universities. *Journal of Sport and Leisure Studies*, Vol. 21, 165-175, 2004.
- [19] Chung, E. K., Lee, S. K., Senses study of physical education as a culture subject for non-specialized students. *Korean Sport Research*, Vol. 15, No. 2, pp. 315-324, 2004.
- [20] Hwang, H. H., A study on university students' recognition of general physical education, class satisfaction and exercise adherence intention. *Korean Sport Research*, Vol. 18, No. 6, pp. 293-304, 2007.
- [21] Jo, S. W., Won, Y. S., Lee, M. K., The role of general physical education and improvement plan consideration in college. *The Korea Journal of Sports Science*. Vol. 22, No. 3, pp. 489-501, 2013.
- [22] Cho, N. K., The role and the direction of elective physical education in the post-modern era. *Philosophy of Movement : Journal of Korean Philosophic Society for Sport and Dance*, Vol. 17, No. 1, pp. 181-195, 2009.
- [23] Choi, E. C., *Humanities-oriented Physical Education*. Seoul. Rainbow Books, 2002.
- [24] Kim, Y. G., The project for activation of cultural

physical education in university.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Vol. 37, No. 3. pp. 499-511, 1999.

- [25] Kim, S. H., Shin, Y. S., A study of sports in the university(1): cultural physical education,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Vol. 41, No. 1. pp. 23-44, 2002.

윤 대 현(Dae-Hyun Yun)



- 1997년 2월 : 충남대학교 체육교육과(체육학사)
- 1999년 2월 : 충남대학교 체육학과(체육학석사)
- 2005년 2월 : 충남대학교 체육학과(이학박사)
- 2000년 4월 ~ 현재 : 충남대학교 체육교육과 강사

- 관심분야 : 스포츠심리상담, 심리기술훈련
- E-Mail : dhyun-cnu@hanmail.net

이 주 욱(Joo-Wook Yi)



- 2002년 2월 : 명지대학교 체육학과(체육학사)
- 2004년 2월 : 고려대학교 체육학과(체육학석사)
- 2008년 2월 : 고려대학교 체육학과(체육학박사)
- 2010년 2월 ~ 현재 : 충남대학교 체육교육과 교수

- 관심분야 : 학교체육, 야외교육
- E-Mail : joowookyi@cnu.ac.kr